

충남 해안지방 동제의 유형과 특징 (忠南 海岸地方 洞祭의 類型과 特徵)

金宗大
(文化財 研究所)

目次

- | | |
|-------------------|--------------------|
| 1. 序 | 다. 倉里 靈神祭 |
| 2. 洞祭의 類型과 그 儀禮節次 | 라. 看月島里 堂祭 및 굴부르기祭 |
| 가. 甕岩里 靈山祭 | 3. 洞祭의 特徵 |
| 나. 新津島里 堂祭 | 4. 結語 |

1. 서(序)

동제(洞祭)는¹⁾ 한 마을을 단위로 하는 제의 형태로서, 이를 동신신앙(洞神信仰)²⁾, 집단신앙(集團信仰)³⁾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동신신앙은 마을의 수호신에 대한 기원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집단신앙은 촌락단위의 집단제라는 의미에 보다 주안을 두고 있는 개념설정이다. 따라서 동제는 한 마을 내의 구성원들이 자기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수호신을 모시고, 신에 대한 기원을 통하여 마을 전체의 안녕과 개인적인 소원을 얻고자 하는 의지적인 표출로 평가된다.

동제(洞祭)는 우리 민족의 집단신앙의례행위(集團信仰儀禮行爲)를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또한 민족적인 신앙형태의 표현양상과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기능 등이 한 마을의 구조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점들도 동제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몫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조사자에 따른 시각의 차이에 의해 왕왕 동제의 내밀성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차이가 객관적인 면모에서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후대의 연구자에게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자기시각에 근거한 동제의 해부, 혹은 그 가치관을 설정하려고 한다는 데에 보다 큰 문제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명증하

1) 崔吉城은 洞祭를 부락제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부락제를 洞祭라고 하는 유교식 의례와 巫俗式의 별신굿으로 구분한다. (「韓國民間信仰의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9, p.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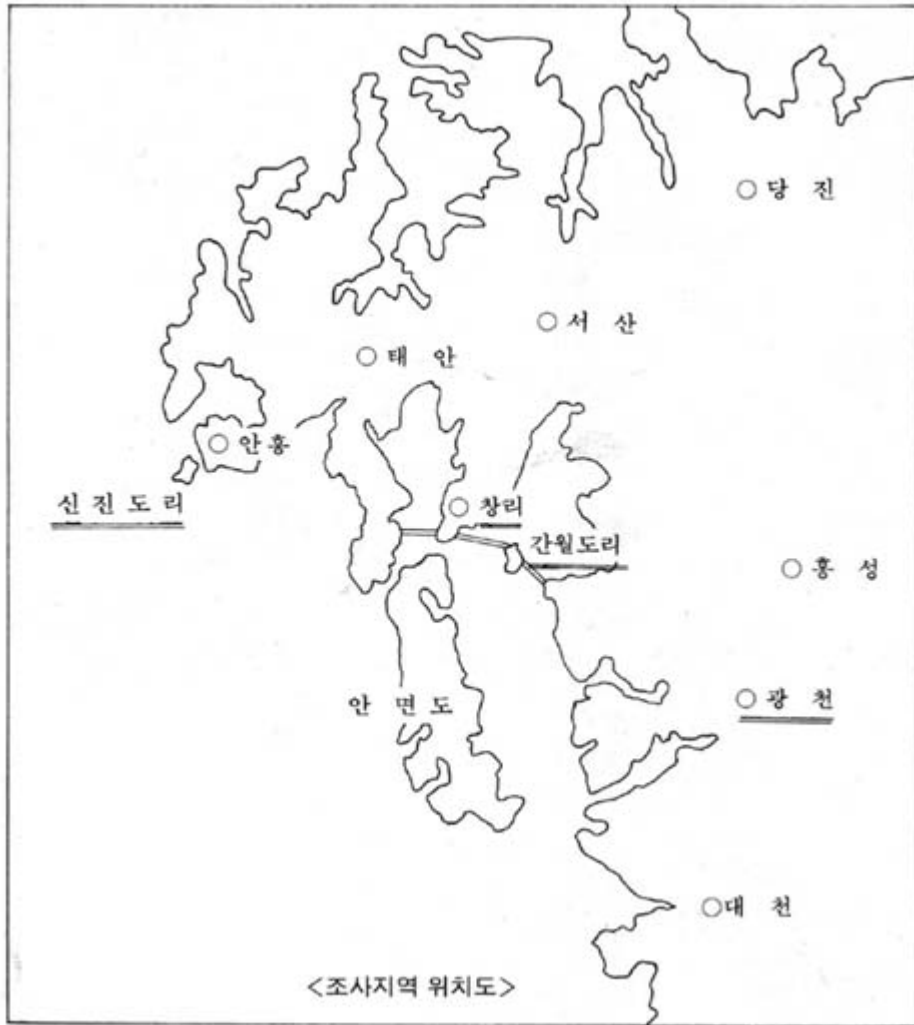
2) 金泰坤,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1983, p.20.

3) 朴桂弘, 「韓國民俗學概論」, 螢雪出版社, 1987, p.219.

게 성취된 것은 아니다. 또다른 문제는 이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조사대상의 현지적인 상황에 어느 정도 조사자가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실제적인 제의행위의 전개를 한시적으로 보게 될 때 발생하는 오류들이 그것이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조사방법론의 자기 성찰과 함께 다양한 경험 -조사행위- 들을 통해서 수정될 수 있을 것이며, 수정되어야만 마땅할 것이다.

동제(洞祭)는 우리나라가 옛부터 농경문화지역이었다는 점에서 농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제의 역사는 고대의 제정일치시대 훨씬 이전부터로 추정되며, 문헌상으로는 삼한시대(三韓時代)로까지 소급되어진다. 이러한 전통이 현재에도 전승되어 동제를 지내는 곳은 많이 있으나, 197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나 문화향유대상의 다변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인 변동에 의해 본래의 기능과 모습이 퇴화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제가 어떤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현지주민들의 동제에 대한 인식태도는 어떠한가, 또한 이런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동제의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충청도 해안지방의 독자성이 있는가도 다루어 보고자 했다. 그러나 동제가 정월초나 정월보름에 집중적으로 거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제를 관찰할 수 있었던 곳은 간월도리(看月島里)의 굴부르기제와 신진도리(新津島里)의 동제 준비과정 뿐이고, 나머지 지역은 주로 대담조사와 V.T.R. 테이프자료 등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보다 사실적인 면에서 착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조사는 원래 동제가 목적이 아니라 낫놀이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낫놀이 자체도 동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형태적인 특징과 내용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주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으나 현지조사의 결과 낫놀이의 면모는 거의 희소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와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서산군 부석면 창리와 간월도리이다. 조사기간은 1차로 1990년 2월 7일에서 2월 10일 까지이며, 2차는 동년 2월 20일에서 22일 까지였다.



<조사지역 위치도>

2. 동제(洞祭)의 유형(類型)과 그 의례절차(儀禮節次)

가. 응암리(甕岩里) 영산제(靈山祭)

1) 배경요인(背景要因)

행정구역 상으로는 홍성군 광천읍 응암리로서, 양촌리. 상옹리. 하옹리. 노동리. 석포리 등의 5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광천읍의 지세는 대체로 산악과 구릉지대이며, 경지면적은 총면적의 42%인 14.59㎢이다. 동쪽은 장곡면(長谷面)과 서쪽은 은하면(銀河面), 북쪽은 귀항면(龜項面), 남쪽은 보령군(保寧郡) 청소면(靑所面)과 인접하고 있다. 홍성군의 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면은 서산군 부석면 간월도리와 최근에 연육되어 왕래가 빈번하다.

응암리는 원래 포구로서 천수만(淺水灣)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응암포가 성행하였을 때는 100여척 이상의 어선이 출입하였다. 그러나 천수만이 퇴적물에 의해 막히자, 선박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1975년에 폐항조치가 되었다.

응암리의 가구수는 239가구, 인구는 927명으로 남자 477명 여자는 450명이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나이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남	47	122	78	54	52	56	39	25
여	36	81	65	53	61	75	54	18	7
계	83	203	143	107	113	131	93	43	11

도표에 근거할 때 10대에 비해 20대의 인구가 반정도로 줄어 들었다. 이것은 심한 인구의 이동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웅암리의 주생업이 농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인력의 난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웅암리의 생업은 주로 농업이며, 축산을 하는 가구가 213가구로 거의 집집마다 소나 돼지를 키우고 있다. 특용작물은 전무한 대신에 특산물로 새우젓을 생산하고 있는 마을이다. 웅암리는 원래부터 새우젓을 생산했던 곳으로서, 포구가 폐쇄되면서부터 약간 쇠퇴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태안이나 멀리 군산에서도 새우를 신고와 가공을 한다. 새우젓의 시설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

		저 장 시 설				가 공 시 설			
저장굴 수	저 장 가능량	보 관 량		관 매 고		시설 면적	참여 인원	생산량	판매고
		제조 보관	보관 수입	판매	수입				
20 개소	10,000 드럼	6,000 드럼	12,000 천원	5,500 드럼	82,500 천원	41 평	5 명	1,250통 (20드럼)	14,000 천원

이와같은 마을의 현황으로 미루어보면 어촌적인 배경은 거의 상실했다고 추정되며, 주로 농업과 축산, 새우젓가공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생활영역의 변모는 구체적으로 동제의 진행내용이나 의미부여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생업의 토대위에 동제의 존립도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조사를 위한 대담자와 자료제공자는 다음과 같다.

- 대담자
 - 편무영 (남, 1917년생) : 웅암리 543의 5번지
 - 홍용산 (남, 1911년생) : 웅암리 478번지
 - 최정년 (여, 1922년생) : 웅암리 상용2반 392번지
- 자료제공자
 - 김승제 (홍성군청 공보실)

2) 영산제(靈山祭)의 형태(形態)와 절차(節次)

웅암리 동제의 정식 명칭은 영산제(靈山祭)이며 당명(堂名)은 영산당(靈山堂)이다. 예전에는 지금 위치하고 있는 당보다 약 50m 떨어진 야산에 신목(神木)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4년 전에 현재의 장소에 당집을 건립하였으며, 당 안에 있는 산신령 등의 신도(神圖)도 그 당시 홍성에 살고 있는 화가를 불러다가 그린 것이다.

당 주위의 금기사항으로는 부정한 사람은 접근하지 말 것, 대소변을 보지 말 것 등이 있었다. 금기사항을 대담자들이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현재 당내의 신성함이

4) 廣川邑 邑政報告 (1990年度)

무시되고 있기 때문인지 그 이유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당은 대략 8평 규모로 일자형 팔각지붕이며, 신목(神木)은 없다. 당안에는 산신령(山神靈), 본당조부모신(本堂祖父母神), 오방신장(五方神將) 등 3개의 신도(神圖)가 그려져 있으며 주신은 본당조부모신(本堂祖父母神)이다. 본향신위를 모신 유래는 분명하지 않았으며, 대담자 모두가 당집을 모셨을 때부터 라고 대답했다. 오방신장은 임경업 장군과 유비, 관우, 장비이며 한 분은 모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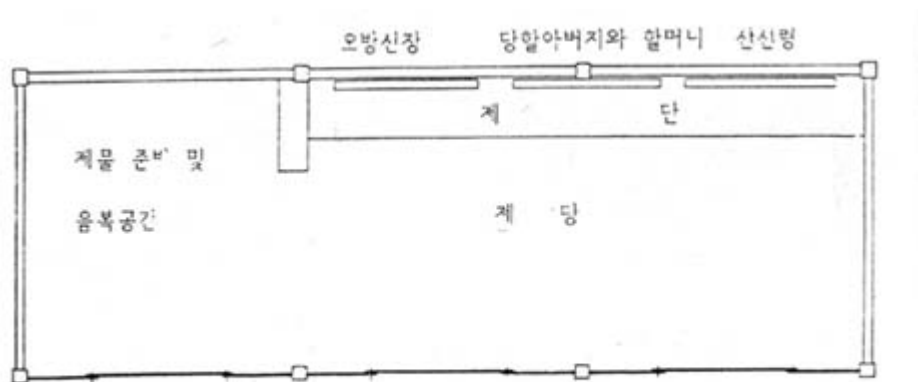
제의를 지내는 목적은 과거에는 용암리가 포구였기 때문에 풍어를 기원하였다. 70년대부터는, 특히 용암포구가 폐쇄되면서부터 풍어보다는 풍년기원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다. 영산제는 노인회를 중심으로 하여 마을의 번영회와 대동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 영산제의 제의과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당주는 음력으로 12월 20일에 마을의 대동회에서 결정하는데, 생기복덕이 좋은 사람 중에서 골라 뽑으며 동시에 도화주와 전화주, 부화주를 선출한다. 올해에는 편일선(片一先)(70세)씨가 뽑혔다. 당주로 뽑힌 사람은 음력 12월 30일부터 새해 1월 6일까지는 애경사 뿐만 아니라 문밖 출입도 금하며, 매일 목욕재계를 한다. 그리고 당주집 문앞에는 금줄을 치고 용대기(龍大旗)를 꽂아서 당주집임을 표시하게 된다.

제물의 구입은 광천의 덕신상회에서 주로 구입하며, 구입자는 화주 3명이다. 제물을 구입하려 가기 전에는 목욕재계를 해야 한다. 구입한 물건은 모두 당주집으로 가져가 제물로 쓸 편이나 음식 등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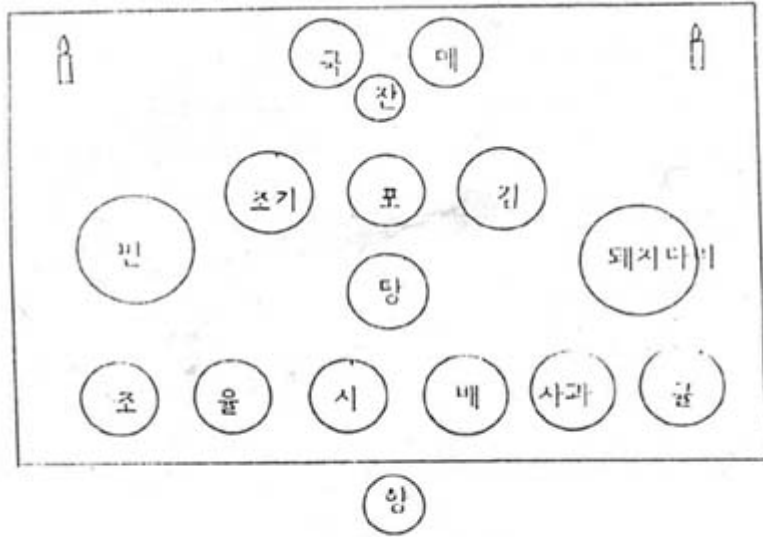
++음력 정월 초엿새날 오후 4시쯤 당으로 제물을 운반한다. 이때 농악대가 당주집 주위에서 풍물을 울리며 노는 동안에 교자 위에 큰 상을 얹고 그 위에 제물을 담는다. 운반자는 4명으로 모두가 목욕재계를 해야 하며, 마스크를 하고 흰 한지로 만든 모자를 쓴다. 오르는 순서는 맨 앞에 용대기와 농기, 청년회기를 세우며, 그 뒤에 상쇠 등의 농악대가, 그리고 제물을 실은 교자, 당주내외와 화주들, 무녀, 마을사람의 순이다. 당주는 한복에 두루마기와 갓을 썼으며 화주들은 평상복을 입었다.

당에 도착하면 용대기와 농기, 용암청년회기를 앞세우고 농악대가 먼저 당을 한바퀴 돌고 나서 제물을 당안으로 운반한다. 제물을 제단 위에 진설하고 있는 동안 농악대는 당 앞에서 풍물을 계속 친다. 제물은 먼저 산신령 앞에 1상을 당할아버지와 할머니 앞에 2상, 오방신장에는 5상을 차례 놓는다. 당의 구조와 상차림은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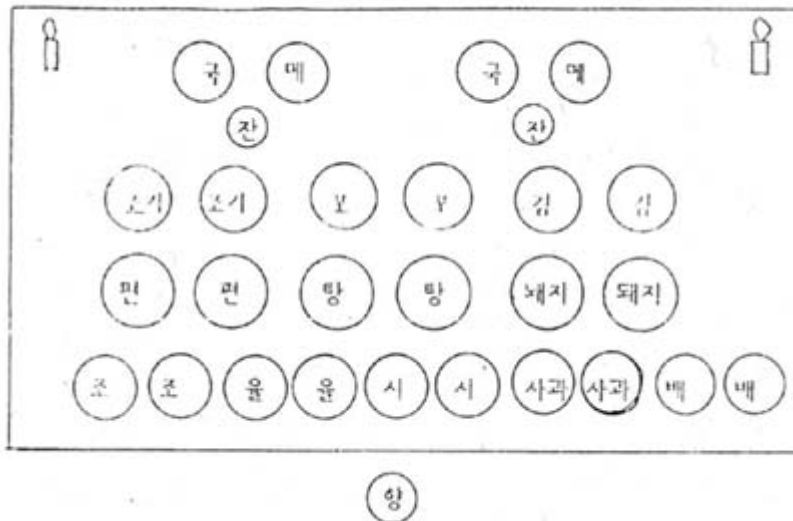
당 구조

당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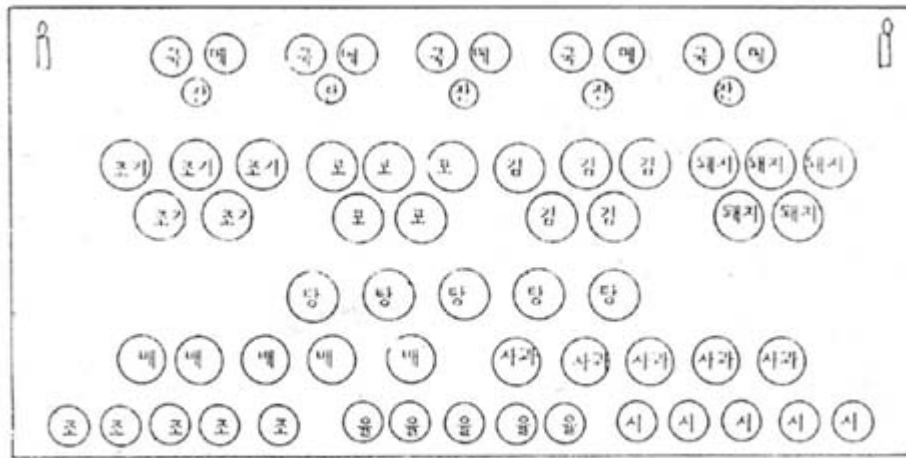
산신상 차림

산신상 차림



당 할아버지와 당 할머니의 상차림

당 할아버지와 당 할머니의 상차림



오방신장상차림

오방신장상차림

제물을 모두 진설한 후 현지무(現地巫)인 최정년무(巫)가 각 신위마다 부정풀이를 해준다. 부정풀이가 끝나면 당주와 도화주가 먼저 산신령 앞에서 삼배를 하고 잔을 올린다. 당할아버지와 가faj니 앞에서는 이것을 두 번 하며, 오방신장 앞에서는 다섯 번을 해야 한다. 여기서는 축문도 없으며, 고시례도 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영산제는 끝난 것이며, 개인치성을 올리기 시작한다. 개인치성의 주대상은 당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주로 부녀자가 드리지만 남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치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꽃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 위에 쌀을 올린 형태가 아니라 쌀이 담긴 자루를 벗겨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쌀 위에는 주발을 얹어 놓았으며, 초는 3~5개 정도 켜놓는다.

개인치성을 드리는 동안에는 농악대가 당 안으로 들어와 풍물을 울리며 춤을 추기도 하고 음복을 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치성 도중에 의지에서 온 무녀가 꽃반으니 쌀로 일년점(一年占)을 쳐주기도 한다. 꽃반점이 끝나면 최정년무(巫)가 당할아버지와 할머니 앞에서 부정풀이를 해주는 것으로 끝난다.

제물의 진설은 산신령, 당할아버지와 할머니, 오방신장 순이며 거두어 드릴 때는 이와 반대이다. 또한 앞에 진설해둔 과일을 먼저 거두어야 하며, 이 제물은 모두 당주집으로 가져간다. 과거에는 영산제를 6일 오후 4시경에 시작해서 다음날 7시쯤에 끝났는데, 요즘은 밤 10시~12시 사이에 끝난다. 이번에는 11시쯤에 끝났다.

6일에 당제를 지낸 후 9일에 “3일녹음”을 치룬다. “3일녹음”은 당주내외만이 매만을 해서 저녁 무렵에 당으로 올라가서 절을 하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다. 마을 사람 전체가 참여하여 음복을 하고 놀게 되는 것은 “3일녹음”이 끝난 다음인 10일이다. 이때는 당주집에 보관했던 제물을 먹으면서 농악의 풍물에 맞춰 춤을 추고 율놀이 등을 하며 즐겁게 논다.

음복 후에 노인회관에 모여 결산을 한다. 경비의 추렴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마을사람들이 성의껏 쌀이나 돈을 내는 것이다. 올해의 경비는 약 70만원 정도 들었다. 만약 경비가 부족할 경우 마을의 번영회에서 지원을 하며, 남은 돈이 있다면 번영회에 유치하여 다음해의 경비로 사용하게 된다. 당주의 사례는 돈을 주는 대신에 신발 한 켤레를 사주었다. 당주는 음복일인 10일 때문에 걸어 두었던 금줄을 철수하며, 이것으로 당주의 역할은 끝난다.

영산제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인식은 주로 노인회와 청년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또한 기독교회가 마을에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특히 학생들도 무관심하다. 따라서 광천읍에서 제일 규모가 큰 행사로 전승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 광천읍에서는 “원동서낭제”라는 동제가 있었는데, 용암영산제보다 유래가 깊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광천읍 전체가 참여한 큰 굿이 벌어졌으나 80년대에 와서는 상인들만 모여 진행하였으며, 이것도 87년까지만 거행하고는 끊겨 버렸다. 광천리 삼봉마을에서는 신목(神木)(괴목(槐木))과 콘크리트로 된 제단을 만들어 마을의 재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동제를 지내왔는데 현재도 소규모로 거행되고 있다. 또한 신대리 셋터마을도 산신당(山神堂)이 있어서 산신제를 지냈으나 5년 전부터 전승이 끊긴 상태이다. 광천리 원촌마을에도 신목(神木)(참나무)과 토석제단(土石祭壇)으로 이루어진 산제당(山祭堂)이 있었는데 현재는 전승이 끊겼다.

나. 신진도리(新津島里) 당제(堂祭)

1) 배경요인(背景要因)

신진도리의 행정구역은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로서, 태안반도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 안흥항과 마주보고 있다. 신진도리의 총면적은 143.6ha이며, 안흥과 연속하려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태안에서 안흥까지는 수시로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고, 직행버스는 서울과 인천으로 연결되고 있다. 안흥에서 신진도리를 들어 가는데는 배로 약 10~20분 정도가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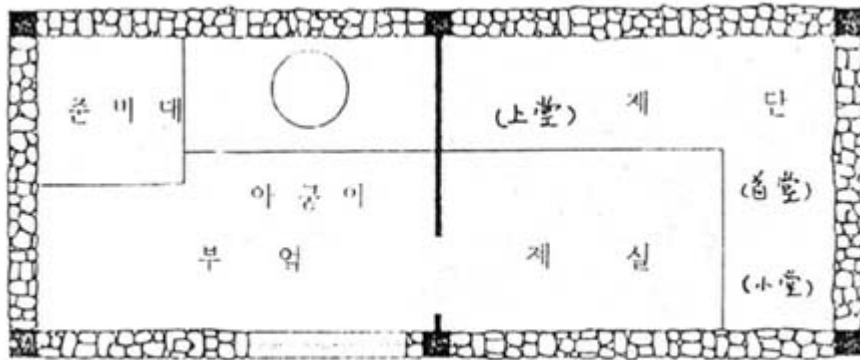
신진도리의 마을 구성은 신진도리와 아래목, 물덩갱이이며, 주로 신진도리에 밀집해서 살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는 총 79세대에 남자가 178명 여자가 167명으로, 최근에는 전라도에서 이주해 온 3세대가 물덩갱이에 살고 있다. 농경지는 총면적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인데, 논이 2.5ha와 밭 7.8ha정도이다. 마늘과 보리가 많이 생산되며, 주교역지는 태안이다. 그러나 신진도리의 주생업은 어업으로서 선박은 소형 59척, 대형 3척이 있다. 어종은 주로 우럭이나 노래미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소비처는 안흥의 횃집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운송되고 있는 편이다. 학교는 국민학교 분교가 2개교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근흥면 소재지에 있는 근흥중학교로, 고등학교는 태안이나 서산으로 통학한다. 신진도리에는 교회가 하나 있지만, 신도는 이곳에 공사온 사람이나 학교교사들만 다니고 있어 마을의 생활과는 거의 유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대담자는 다음과 같다.

- 최병연 (남, 1923년생) : 신진도리 98
- 최혜연 (남, 1936년생) : 신진도리 35

2) 당제(堂祭)의 형태(形態)와 절차(節次)

신진도리의 당은 귀수봉(龜首峰)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상당(上堂)이라고 부른다. 상당에 모시고 있는 주신(主神)은 산신령(山神靈)으로서, 특별히 모신 유래를 듣지 못했다. 중당(中堂)은 안흥쪽에서 마을로 넘어오는 고개턱에 위치하며, 이를 서낭당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중당은 길을 확장하는 공사에 의해 거의 허물어졌고 신목이 하나 있을 뿐이다. 하당(下堂)은 마을쪽 고개밑에 있는 샘으로, 과거에는 여기서 당에 올리는 제수를 준비했으나 현재는 마을의 우물에서 길어다가 하고 있다. 상당은 토담집으로서 지붕은 함석으로 된 일자형(一字形)이며, 당안은 부엌과 제실로 구분된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당 구조

당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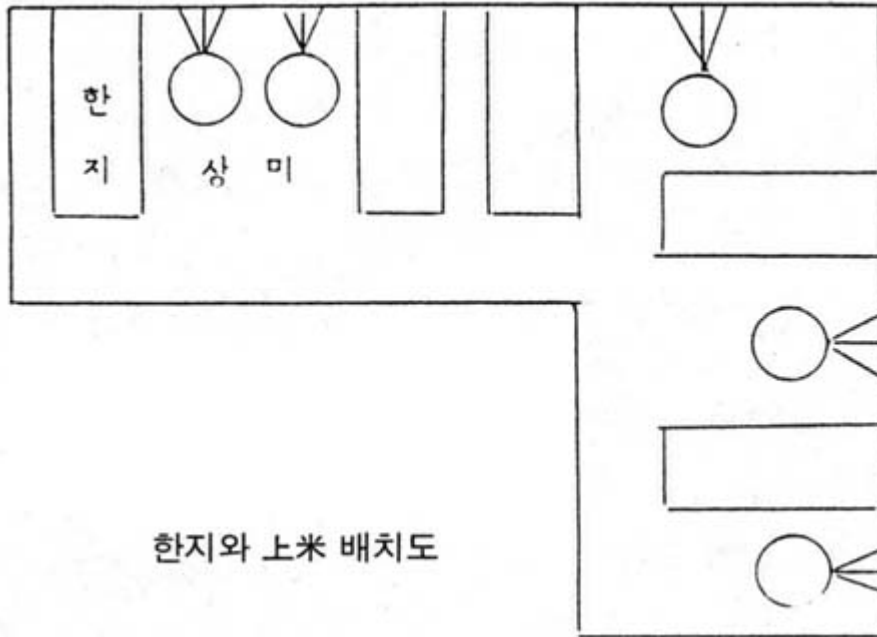
이 마을에서의 제의명칭은 당제(堂祭)이다. 당제의 주관은 마을의 어른들이 주동이 되어 음력 선달 25일경부터 추진하며, 이 때에 예산도 수립하게 된다. 제관 겸 당주는 정월 초이렛날 선출하며, 동시에 화주 2명도 같이 뽑는다. 제관은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생기복덕이 좋은 사람으로 선별한다. 올해에는 제관으로 이장인 최혜연씨가, 화주는 박대봉씨(56세)와 오선강씨(51세)가 뽑혔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제의기간 동안 두문불출하고 금줄을 문앞에 걸었는데 1960년대 이후 이러한 금기가 점차 무너졌다. 또한 목욕재계도 현재는 하지 않으며, 단지 14일 낮에 태안으로 목욕하러 갈 뿐이다. 그러나 엄격히 지켜지는 금기사항이 하나 있는데, 동네에 임산부가 있다면 선달 그믐날 동네 밖으로 나가야 한다. 35년 전에 초산인 임산부가 모르고 당제기간 동안에 마을에 있었다가 그 해에 배가 조난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기만은 철저히 지킨다. 따라서 제관으로 뽑히는 것을 회피할 때, 집안에 부인이 임신했거나 생리중이거나 또는 상처가 났다고 해서 물리치는 예가 종종 있다.

제관과 화주로 선출되면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 태안으로 장을 보러간다. 제물을 구입하는 가게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상주나 임산부가 있는 집은 피한다. 과거에는 구입한 물건을 땅에 놓거나 외부인 들과 말을 못했는데 이러한 금기도 현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90년도 제물구입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육	국거리 4근	대추 1보수	은박지 10개
	정육 2근	복어 6미	막걸리 1통
	회간 1근	소지 2권	쌀 1말
양초	2갑	약주 2병	필름 1통
건시	5곳	두부 1짝	

당제는 오후 2~3시 경부터 거행하는데 농악이나 마을사람의 참여가 없이 당주와 보조자 3명만이 당에 오른다. 제관과 보조자의 역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제관은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소지를 하는 등 제의 일체를 맡고 있다. 보조자들은 당안에 마련된 부엌에서 제물을 마련하는 작업만을 한다. 과거에는 조라술을 만들어 당에 갖다 놓았으나 현재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주로 대신한다. 또한 제기도 사기그릇으로 당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깨지고 짝이 맞지 않아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은박지를 사용하는 등 간략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실에는 신위(神位)나 신도(神圖) 등이 없는 대신에 쌀을 한지로 싸서 걸어놓은 상미(上米)와 한지가 있다. 상미의 교체는 당제가 끝난 후 하며, 교체한 쌀은 그대로 버린다. 한지 및 상미의 위치와 제물의 진설은 그림과 같다.



한지와 上米 배치도

한지와 상미(上米) 배치도



제물 상차림

제물 상차림

제단은 5등분해서 제물을 진설하며 소당(小堂)에는 고기와 포를 올리지 않는다. 제물로는 술, 꽃감, 대추, 포, 고기 등이다.⁵⁾ 제수를 당에서 직접 만들어 제단에 진설하게 되는데, 진설 후 축문도 없이 당신(堂神)인 산신령(山神靈)에게 절을 한 후 소지를 올린다. 제일 먼저 한지 한 장으로 대동소지를 올리고, 선주들과 마을사람의 개인소지는 한지 반장으로 하는데 약50명 정도이며, 이 절차도 제관이 혼자서 진행한다. 소지시 드리는 축원 내용은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도리 ○○○소지입니다. 금년 사업이 잘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단히 읊는다. 소지를 올리는 중간중간에 제물을 계속 교체하며, 이 때마다 절을 한다.

대개 정월 보름날 새벽 3시경에 끝내야 한다는 통념 때문에 제의가 일찍 끝나도 하산할 수 없다. 따라서 제관은 제의를 되도록 천천히 진행한다. 제의가 끝나면 제관은 고시례를 하고 남은 음식은 거두어 마을로 내려온다. 새벽에 제관 및 화주 일행이 내려오면 오전 10시쯤 각 선주들은 자기배로 가서 개인적으로 고사를 지내게 된다.

뱃고사가 끝난 후 마을에서는 전체적인 놀이가 펼쳐 지는데, 신진도리는 농악도 없어 율놀이 정도를 할 뿐이다. 이때 음복을 하면서 제비(祭費)에 대한 결산을 한다. 예전에는 도가집에서 했는데 60년대 이후 동네 입구에 있는 가게집 앞의 마을회관에서 해왔다. 제비(祭費)의 추렴은 선주가 5,000원, 일반 마을 사람은 2,000원 정도를 낸다. 1989년에는 총지출금이 약 287,000원 이었으며, 1990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75,000원이다. 금년에는 약 300,000원 정도를 각출하였다. 제관에 대한 수고비도 과거에는 없었으나, 5~6년 전부터 제관을 기피하기 때문에 만원을 주고 있다.

신진도리 당제의 목적은 풍어와 조난이 없이 무사태평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당제의 내용은 서산군 간월도리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간월도리는 굴부르기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마을 전체의 축제로 승화되었으나, 신진도리는 마을사람 전체가 참여해서 흥을 고취할 만한 내용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신진도리의 당제는 과거에 비해 신성함이나 절대적인 면모가 퇴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생활의 변모나 정신적인 의지대상의 변질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당제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마음가짐도 그다지 감명적인 면을 살펴볼 수 없었으며, 이것은 당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외에 신진도리에는 후망제(候望祭)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안흥에서 하고 있으나 전승은 미진한 상태이다.⁶⁾

다. 창리(倉里) 영신제(靈神祭)

1) 배경요인(背景要因)

창리의 행정구역은 서산군 부석면 창리로서, 서산군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포구이다. 과거에는 북쪽 지역을 제외한 삼면이 바다였으나, 현재는 현대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간척사업으로 인해 남쪽 만이 바다로 열려 있다. 따라서 생업이었던 어로와 양식업은 점차 퇴조하고 있으며, 농경중심의 마을로 변모과정에 있다. 창리의 농경지 면적은 79.2ha로서 논 46.2ha와 밭 36.6ha이다. 총 세대는 170세대이며, 남자가 551명이고 여자는 352명으로 남자가 월등히 많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5) 「瑞山民俗誌」에 의하면 호이(회)고사를 지낸다고 보고되어 있다. 제물구입품목에 있는 회간이 이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대담자들에 의한 제물진설에는 생략되고 있는 차이를 보여준다.(慶熙大學校 民俗學研究所編, 瑞山文化院, 1987, p.799. 참조할 것)

6) 候望祭는 원래 중국 사신들이 서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용왕께 기원하는 제의이다. 「한국의 축제」(한국문화예술훈원, 1987, p.218.)에 보면 신진도리의 후망봉에서 거행한다는 기록이 있으나, 후망봉은 신진도에 없다. 대담자들도 안흥에게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이 구분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남	551	70	84	63	189	86	40	16	2	1
여	352	79	55	54	61	48	25	17	10	3
계	903	149	139	117	250	134	65	33	12	4

연령분포에 근거하면 30대가 제일 많으나 가장 활동적으로 일할 나이인 20대가 오히려 적은 실정이다. 특징적인 것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2 : 1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극심한 이농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1987년에 발간된 「서산민속지(瑞山民俗誌)」에 의하면 미혼 여성은 마을에 한 명도 살지 않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⁷⁾

교육시설로 국민학교 분교가 1개소 있을 뿐이다. 교통편은 서산에서 출발하는 직행버스가 하루 10회, 완행버스가 간월도리까지 18회 운행한다. 최근 간척사업으로 홍성군과 연결되어 내왕이 잦은 편이다. 주생산물은 벼이며, 특용작물은 마늘과 생강이 있는데 외지에서 온 상인들과 주로 매매한다. 해산물로는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되기는 했지만 우럭과 대하가 잡힌다. 선박수로는 거의 55톤미만으로 1톤 미만이 15척, 5톤미만이 25척, 10톤미만이 3척 있다. 연안 어업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선박의 건조나 수리는 태안의 안흥항이며, 선구품 구입도 여기서 한다. 창리에서의 대담자는 다음과 같다.

- 김창학 (남, 1906년생) : 창리 293-15
- 김춘복 (남, 1948년생) : 창리 293-3

2) 영신제(靈神祭)의 형태(形態)와 절차(節次)

창리의 당은 상당(上堂)(국시당(堂))과 마을 입구의 좌측에 있는 당산(堂山)에 영신당(靈神堂)이 있다. 영신당은 바다를 향해 세워져 있으며, 당 주위에는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 당 집의 형태는 함석집으로 제수를 준비할 수 있는 조그만 마당과 부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당에는 차일을 칠 수 있도록 철제골격이 세워져 있다. 현재 상당은 공사로 인해 없어진 상태이며, 따라서 정월 초이튿날 국시당에서 거행하던 산신제는 생략되었다. 또한 윤달이 드는 해에 세우던 장승도 사라진 실정이다. 과거의 제의 절차는 상당(上堂)→영신당(靈神堂)→장승제(祭)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에는 영신당의 영신제 만이 존재한다. 영신당 안에는 임경업(林慶業) 장군(將軍) 부부상(夫婦像)이 걸려 있다. 원래에는 장군상 만이 그려져 있었으나 도난을 당하고, 5~6년 전에 서산에서 화가를 불러다가 그려놓은 것이다. 이외에 쇠말(철마(鐵馬))이 있었다고 하며, 이에 따른 쇠말전설이 전한다.⁸⁾

그러면 영신제에 대한 절차를 살펴 보겠다. 제관의 선정은 음력 선달 스무날에 하는데, 선주 및 마을의 노인 등이 모인 대동회에서 생기복덕이 제일 좋은 사람을 고른다. 당주(제관)를 부부로 뽑는 것이 특이하며, 화주를 두명 선출한다. 예전에 과부가 뽑혔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당주에 맞출 남자도 뽑아준 사례가 있었다. 당주로 뽑히면 집앞에 황토를 뿌리고 대문에 금주를 친다. 당주는 개고기를 먹을 수 없고, 외출은 가능하지만 초상집과 같이 부정한 장소는 출입을 못하며 목욕재계는 저녁마다 한다. 그리고 마을에 임산부나 해산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 밖으로 내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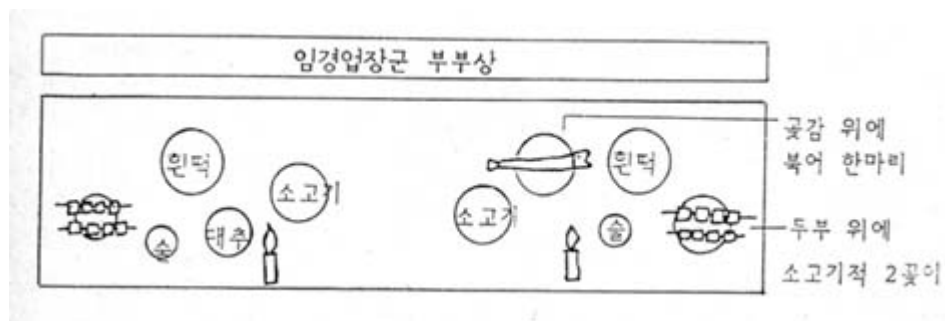
7) 「瑞山民俗誌」, p.108.

8) 金泰坤, 앞책, p.128.

제수의 구입은 소를 잡을 때도 있으나 사오는 경우도 있다. 소를 잡는 경우는 당에서하며, 사올 때는 서산에서 화주가 장을 본다. 제수는 당주집에서 마련하게 되는데, 선달 그믐날 만들었던 조라술은 제일(祭日) 전날인 정월 초이튿날 당에 갖다 놓는다. 제의시기는 원래 초이튿날 당주집에서 제물을 만들어 밤에 상당으로 올라가 산신제를 지내고, 3일날 아침 영신당에서 당굿을 벌였다. 그러나 지금은 산신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신제만을 드리게 된다.

먼저 3일 아침 선주들은 자신의 뱃기를 들고 마을의 광장으로 모여며, 이런 동안 농악대는 한바탕 풍물을 올린다. 광장으로 모이면 뱃기를 들고 해안으로 가서 자기의 배 앞에서 서 있다. 각 배에는 뱃기들이 세워져 있어 선주들이 들고온 뱃기와 함께 어우러져 화려한 장관을 이룬다. 그러면 농악대 들은 샘굿을 하듯이 풍물을 치면서 간단히 뱃고사를 대신한다. 이 사이에 마을의 광장에서는 거릿제가 거행되는데, 올해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소리패들 중 한 여자가 부정풀이를 했다. 당주부인은 간단하게 차린 상 앞에서 절을 한다. 이것이 끝나면 농악대가 당으로 출발하며 뱃기를 든 선주들은 당산 밑에서 기다린다. 농악대들은 당에 도착하면 간단히 풍물을 올리는데, 이것은 무당이 해야 할 부정풀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주와 화주들은 당으로 제물을 운반하는데, 지계에 지고 가거나 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간다. 당에 도착하면 당주내외가 제물을 진설하게 된다. 제물의 진설은 임경업장군 부부에게 가기한 상씩 차려준다. 그 상차림은 다음과 같다.9)



임경업 장군 부부 상

제물의 진설이 끝나면 뱃기를 든 선주들이 당에 올라와 뱃기를 쫓는다. 이것이 끝나면 당주와 비손하는 사람이 당에서 재배를 드리며 비손을 올린다. 여기서는 축문이 없으며 따라서 축관도 없다. 그리고 소지를 올리는데, 이것은 서울에서 내려온 소리패가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농악은 풍물을 울리지 않으며, 당제가 끝난 후 하산을 할 때 뱃치기노래를 하면서 풍물을 올린다.

제비의 추렴은 각 집마다 곡물을 성의껏 하며, 선주들은 돈을 낸다. 이외에 외지에서 온 손님으로부터 약간의 기부금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당제가 끝난 4일에 결산을 하며, 이때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물을 치며 흥겨이 노는 것이다.

창리에서 지내는 영신제의 목적은 풍어를 기원하고 해상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임경업장군 내외에게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장이 없어짐에 따라서 어업활동이 약화되어 농업과 관련된 풍농을 기원하는 내용적 변화도 있다. 이것은 창리가 갖고 있는 생활환경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굿의 경우도 과거에는 무당을 부르다 흥겨운 굿놀이가 진행되었으나, 예산의 형편상 무당에 의한 큰굿을 벌이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간략한 형태로 변모되었다. 내용 상으로는 무당이 담당했던 부정풀이 등을 농악이나

9) 이것은 「瑞山民俗誌」에 기록된 제물의 차림에 비해 훨씬 간략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리패가 대신하는 등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라. 간월도리(看月島里) 당제(堂祭) 및 굴부르기제(祭)

1) 배경요인(背景要因)

간월도리의 행정구역은 서산군 부석면 간월도리이다. 간월도리는 원래 섬이었으나 간척사업으로 육지와 연속되어 생활에 큰 변화를 갖게 되었다. 농경지는 논이 3.8ha와 밭이 26ha가 있어 밭농사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생산물을 호남산 마늘로 외지에서 찾아온 상인들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마을의 주생업은 어업이다. 해산물로는 어리굴젓이 유명하며 새조개와 노래미, 우럭 등 잡어도 잡힌다. 특히 어리굴젓은 자연산 굴로 담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왕에게 까지 진상되던 특산물이다. 선박은 1톤 미만이 8척, 1톤에서 5톤 미만이 25척, 5톤 이상이 10척으로 주로 연안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의 건조와 수리는 안홍항에서 하며, 선구품도 안홍항에서 구입한다.

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 분교가 1개소 있으며, 총학생수는 65명이다. 교통편은 서산에서 완행버스가 하루 18회 운행되는데, 소요시간은 약 50분 걸린다. 인구수는 총 68가구에 남자가 172명, 여자는 173명이다. 남자와 여자의 인구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은 인근 마을인 창리와 큰 차이가 있다. 연령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나이 구분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남	172	34	38	32	23	19	14	8	4	0
여	173	38	42	19	24	17	17	7	8	1
계	345	72	80	51	47	36	31	15	12	1

도표에 의하면 10대의 인구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나이가 많아질 수록 적어지는 평범한 형태이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10대에는 남자보다 4명이 많으나 20대는 오히려 13명이 부족한 역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미혼여성의 도시 진출현상에서 야기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이런 현상은 극심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2) 당제(堂祭)에 대한 약보(略報)

간월도리에서의 당제는 단순한 동제형태로 잔존하고 있으며, 굴부르기제가 오히려 마을사람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런 현상은 간월도의 특산물인 어리굴젓의 생산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즉 굴의 생산이 많을수록 마을의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간월도리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굴부르기제이며, 당제는 대담조사만 하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진행절차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간월도리의 당은 원래 마을 입구에 있는 야산(당산(堂山))에 창리쪽을 향해 있었으며, 당집을 중심으로 신목(神木)이 울창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간척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이 있던 산을 허물어 그 흙으로 간척지를 매립하는데 사용하였다. 이 때에 당도 허물게 되었고, 당 내에 모셔둔 신도(神圖)도 그 당시에 없어졌다. 이후 마을사람들의 반발로 인해 산을 반쯤 깎은 상태로 남게 되었으며, 당(堂)도 3년 전에 현대건설에서 마을을 향해 새로이 지었다. 또한 신도(神圖)도 그 당시에 없어졌다. 이후 마을사람들의 반발로 인해 산을 반쯤 깎은 상태로 남게 되었으며 당(堂)도 3년 전에 현대건설에서 마을을 향해 새로이 지었다. 또한 신도(神圖)도 당을 건립하면서 서울에서 사와 걸었다고 한다.

당제는 음력으로 12월 29일부터 새해 초삼일까지 거행한다. 제관의 선정은 마을에서 생기복

덕을 따져 당주 1명과 화장 1명을 뽑는다. 올해에는 당주로 노운후씨가 선정되었다. 이들은 29일 간단한 침구와 제물을 갖춰 저녁에 당으로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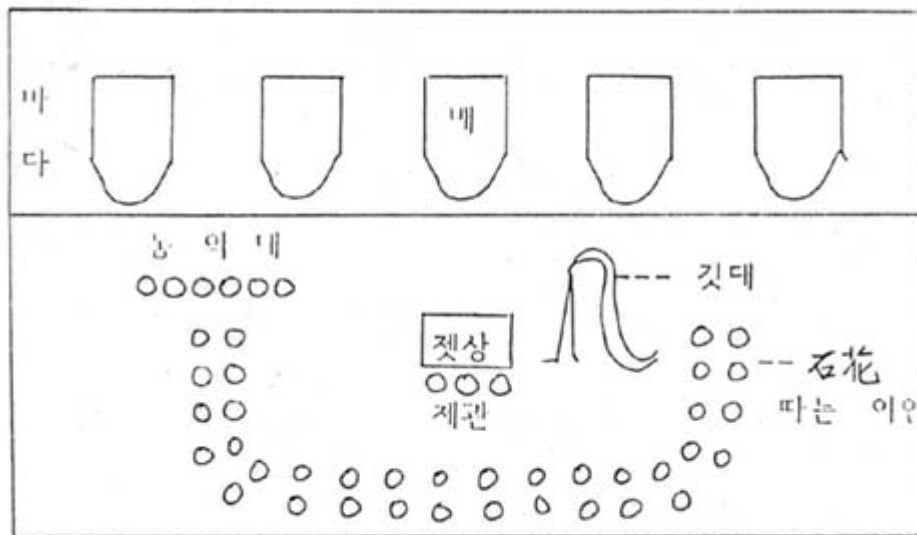
당주와 화장은 당에 기거하면서 4일을 보내게 된다. 제물도 직접 만들어 진설하며, 자신들의 식사도 당에서 해결한다. 따로 축문은 없으며 소지 등을 할 뿐이다. 3일 새벽 6시경에 당을 내려와 당산의 반대편에 있는 간월암(看月庵)이라는 암자에서 치성을 드리고 집으로 간다. 이후에 배를 갖고 있는 선주들은 뱃고사를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굴부르기제와 같이 마을의 공동예산으로 치룬다.

3) 간월도(看月島) 굴부르기제(祭)의 형태(形態)와 절차(節次)

굴부르기제는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굴을 부르는 제의로서, 과거에는 자연산을 채취했던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양식이 성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승은 이루어지고 있다. 굴부르기제는 음력 정월 보름날 밤에 간월도의 부녀자들로 구성되어 포구에 젓상을 차려놓고 제의를 드리는 것이다. 올해에는 14일 낮에 시작했는데, 이유는 15일이 중학교 졸업식이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각 집에서 여자가 한명씩 참가했는데, 제관 3명과 굴(석화(石花))을 따는 여자 53명으로 총 56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농악대 6명과 화주 1명 등 남자 7명이 끼었는데, 원래는 남자의 참여가 금지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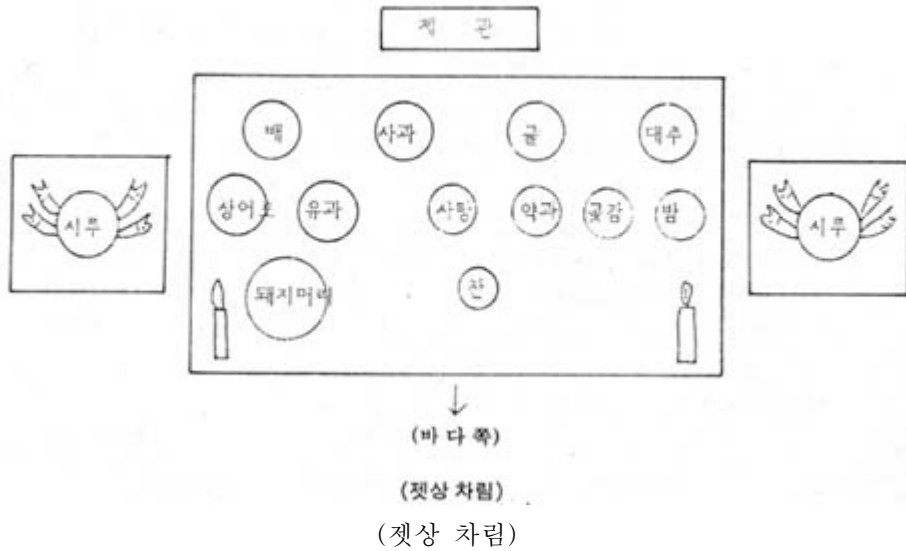
제주는 당제와 달리 여자가 선출되며, 생리나 임신하지 않은 여자로서 생기복덕을 따져 선출한다. 올해에는 노정자씨(1949년생)가 제주로 뽑혔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맡고 있다.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흰 소복을 입고 미리 마을 앞 어귀에 모여 기다리다가 오후 2시경 포구로 이동한다. 이 때에 농악에 맞춰 모두가 동일한 율동으로 춤을 추며 간다. 포구에 도착하면 젓상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젓상을 중심으로 빙 둘러 선다. 제단의 구조와 젓상의 차림은 그림과 같다.



(젓상 및 제관 위치도)

(젓상 및 제관 위치도)



젯상에 제물을 차리고 난 후 제관이 축문을 읽는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서산군 부석면 간월도리 거주 주민일동은

(등하고 복을 친다)

운시루덕반으로 용왕님께 삼가 기도 올리옵나이다.

(등하고 복을 친다)

병인년은 용왕님의 보살피심이 크셨든지라

(등하고 복을 친다)

무해 무덕하게 한해가 아무 탈없이 지나 갔읍니다만

(등하고 복을 친다)

정유년 올해에도 우리 동네에 아무 탈없이 보살피 주시옵고

(등하고 복을 친다)

크게 바랄 것은 올해에도 정산물, 바리기, 몽대, 굽섬, 드르니
저드래, 한바위, 수애, 어설, 남댕이, 도툼마루, 밖에 있는 석
화까지 모두 간월도로 모이게 하여 대풍을 이루게 하여주시
옵소서

(딩기딩, 덩기딩-딩기딩, 덩덩하고 장단맞추어
복을 친다)

석화야- (아낙네들의 화답)

예- (연거푸 세 번)

미친한 인간의 부족한 지성이오나

소원성취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딩기딩 덩기딩 복을 친다)

물위 신령님전 물아래 참봉님전

남해바다 용왕님전 하오등실 하실지라도

미친한 인간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등등-)

동서남북 훑하면 세상인줄 알지
미천한 인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등등-)

정성은 부족할 지란대도 소례를 대례로 받으시고
대례를 소례로 받으시고 용왕님께선 인간을 보살펴 주시니
무엇을 보답하리오만

(등-)

일년이면 열두달 365일 내내 하루같이
돌아갈지란대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등-)

용왕님 전에 무릎밑에 접어 놓으시고
용왕님께서는 동서남북 24방 이리저리
흐트러진 굴일지라도
하오등실 간월도로 뭉쳐주시고

(등-)

나약한 인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죽은 나무 거꾸로 하고
물결이 흘러가면 흘러 가는대로
올라가는 물결따라

(등-)

동서남북 24방 헤매면서 다닐지라도
용왕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등-)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드란대도
용왕님전에서는 마파람에 세미새 밀려오듯
물문은 바가지에 깨 늘어 붙듯
물결따라 오실적에 우리동민 일동 굴 풍년
소원성취 이뤄주시옵소서

석화야- (아낙네들의 회답)

우-- (연거푸 세 번)

(등. 등. 등기등-)

축문을 읽는 도중 ‘석화(石花)야’하고 부르면 석화씨는 여인들은 ‘우-’라는 굴의 화답을 대신하면서 바다쪽으로 절을 한 번 한다. 이 행위를 세 번 연거푸 행한다. 축문이 끝나면 모두 절을 하고 노구열씨(1938년생)가 대동소지를 울리며 비손을 하게 된다. 소지 시에 읊는 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소지는
충청남도 서산군 부석면 간월도리
간월도리 굴왕제 소지 올립니다.

(북으로 등등 친다)
 소원성취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지를 올린다)
 용왕님 전에
 여리주민들 보살펴 주시는 용왕님전 아니오리까.
 그저 아주 우리 주민들 여기 주변마을이
 큰 마을이 되서 웃음꽃이 되고
 주민일동 소원성취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으로 등등 친다)

소지 후 고시례를 하면서 간단히 축이 따른다. 고시례가 끝나면 농악이 다시 시작되고 제관과 석화따는 여인들은 굴 따는 시늉을 한다. 이 과정에서 소리를 잘하는 여인들이 돌아가면서 민요를 부른다. 그것은 시집살이요와 비슷한 내용을 보이며, 4음보 2행인 형태로서 후렴은 없다. 부르는 여인은 최태복, 신중순, 조필순, 노두연 등이다.

곤지나 연지나 요녀를 안고서
 난가락 옥지환 개알산단 말이나

청천 하늘에는 잔별도나 많구요
 요네가슴이 좋구나 수심도나 많더라

우리 어머니는 열달만에 나를 낳아서
 일부종사 못시면 어떻게 종사를 시키나

하루가 청산을 하루이틀을 지나
 요노무나 잠종사 좋구나 날이면 날마두요

못살것네 야-나 못살것네요
 백중사를 서 좋구나 다못 살것구나

일성같으다 나는이못살어
 손시럽구 발시러서 (좋구나)
 나는 넘덕없네

나를 올리나요 왜 나를 올리나요
 말못하는 형님택이 (좋다) 왜 나를 올리나

가세-물들어 오네.

이후 농악과 함께 석화따는 여인들이 젓상을 한바퀴 돌면 제사는 모두 끝난다. 제사가 끝난

후 굴부르기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쪽으로 옮겨서 흥겨운 춤과 음악을 즐기게 되며, 마을사람들은 음식상에 모여 음복을 한다. 그리고 해변가에 있던 배들도 모두 철수를 하게 된다.

간월도리 굴부르기제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부녀자 들만이 참여하는 제의라는 점이다. 당제의 경우 여자들이 배제되는 경향이 강한데 비해서, 이것은 오히려 남자들이 배제되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는 제의후 놀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때에도 부녀자들만이 참가한 춤과 놀이가 베풀어진다. 이것은 남자의 역할보다는 여자 중심의 제의임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는 축문형태가 유교적 한문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언문 형태이며, 축문 도중에 굴을 부르는 유감주술적 의례가 베풀어진다는 점이다. 평야지방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유감주술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을 찾아볼 수 있으나, 축문을 읊는 과정에서 주술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넷째는 신성함의 상실이다. 올해의 굴부르기제는 원래 정월 보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4일에 거행했다. 그 이유는 보름이 중학교 졸업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제물을 차리고 소지를 올리는 제의과정 이외에는 제의에 대한 신성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오락성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오히려 공연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3. 동제(洞祭)의 특징(特徵)

동제의 고유소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민간신앙 모두가 그러하듯이 그것의 전승양태를 명쾌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사지역에 대한 통시적 관찰이 요구된다. 또한 그것에 대한 과거의 행위까지도 알아낸다고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한계와 조사자 개인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내제되어 있는 한 이 작업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완전할 수도 없다. 우리는 한시적인 경험만을 할 수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의 내밀한 구조와 이것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층적인 요소, 예컨대 마을의 역사, 구조,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 변화,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 등을 총괄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을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작업결과가 항상 그러하듯이 조사자는 조사대상이 단지 자료적인 의미로서 인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글도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조사의 한계를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제의 행위는 하나의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의 의례이며, 공통된 소원을 기원하며, 집단의 보존과 현실적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려는 의도된 존재물이다. 의도된 존재란 무엇보다도 동제가 자연발생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즉 인간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며, 또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심리적 행위에서 출발되었다고 볼 수있기 때문이다.¹⁰⁾ 인간의 기원형태들, 신앙이나 속신, 부적 등의 내용도 이런 의미에서 동일범주에 속한다.

동제는 일반적으로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¹¹⁾ 첫째는 유교식 제의, 둘째는 굿놀이 형식의 제의, 셋째는 양자의 결합형태이다.¹²⁾ 동제의 기원설은 최길성(崔吉城)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

10) 宇野圓空, 「宗教民族學」, 岡書院, 1929, p.472.

11) 李杜鉉, 張壽根, 李光奎, 「韓國民俗學概說」, 民衆書館, 1974, pp.177~183. 참조

12) 金泰坤은 유교식제의를 간단한 동신제로 보고 규모가 큰 경우는 당국이 곁들여 진다고 보았다.(「韓國民間信仰研究」,

구된 바 있다.¹³⁾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동제의 기원이 무속에서 기원했다고 하는 주장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분명히 무속 위주의 주장이다. 무속이 우리 민족의 신앙에서 전통의 흐름을 견지하여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속이 생활이나 동제와 같은 집단 의례행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해서 한국의 민간신앙이 논의 되어 왔으며, 무속의 중요성은 보다 강조되었다.

충청도 해안지방에서의 동제는 이런 점에서 약간의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먼저 창리나 웅암리의 경우 현재에는 변화가 있지만 무(巫)의 위치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웅암리는 당에 도착해서 부정풀이를 하는 것과 당주들의 제의가 끝나고 개인축원을 시작할 때 무(巫)가 중심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무(巫)가 제의 전체를 이끌어 갈 정도로 그 역할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개인축원을 올릴 때 참여하는 행위도 원하는 사람에 의해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당에 도착해서 부정풀이를 하는 것 자체도 상징적인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한다. 신성한 당에 대한 부정풀이는 무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악대에 의한 당굿도 병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녀의 참여가 과거에 비해, 즉 유교식 제의 후 당굿이 전개되는 제의 형태에 비해 크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巫)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무의 참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예도 있지만 신진도리와 간월도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두 지역에서는 마을사람들도 참여할 수 없으며, 오로지 당주와 화주에 의해서만 제의가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농악대에 의해 이끌어지는 것도 아니다. 제의과정은 매우 간단하지만 제의를 하는 시간은 신진도리는 하루밤 내내, 간월도리는 4일을 당에서 보내게 된다. 제의 동안에 당주가 하는 일은 제물을 바꾸어 주거나 소지를 올리는 일 뿐이다. 이러한 제의 행위는 당제의 신성함과 당주만이 신을 만날 수 있으며, 제의를 드리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고 하는 신비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유교식 제의가 잔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형태가 한국 동제의 원형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⁵⁾

제의의 신비스러움은 제의기간의 상징적 의미인 신성성(神聖性)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이 기간 동안에는 마을 전체가 정숙이 유지된다고 하는 점이다. 신진도리는 농악대도 없으며 당제가 끝난 후 음복과정에서도 떠들썩하게 놀지도 않는다. 하는 행사라고는 웃놀이 정도이다. 그리고 당제가 끝나고 나서 뱃고사를 지낼 때도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지낸다. 간월도리는 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당제는 전적으로 당주와 화주에게 일임되어 있으며, 그 신성기간도 4일이나 된다. 따라서 당주와 마을사람과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당제를 지내게 되는 것이다. 웅암리의 경우도 “3일늑음”이라는 형태로 신성기간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격리상태에도 불구하고 당제가 단지 제의에 참여한 사람만의 것은 아니다. “제사

p.22.) 崔吉城의 경우는 남성중심의 유교식 부락제와 여성중심의 巫俗儀禮로 구분, 이를 부락제의 이중구조로 파악하였다. (『韓國民俗大觀』.3,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2, p.149)

13) 崔吉城, 畧載, p.150 참조할 것

14) 河孝吉은 “黃島大同祭의 形態와 그 變化樣相”에서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무속기능자의 단절을 이유로 들었다. (『月山任東權博士頌壽記念論文集』, 1986, pp.577~578.)

15) 「三國志」東夷傳의 기록과 관련한 崔吉城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된다. (『巫俗의 世界』, 정음사, 1984, pp.30~31.)

마을에서 제관인 천군을 뽑아 제를 지낸 것이며 또 소의 발을 보아 점을 친 이들 내용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천군>이라는 제사를 모시는 제관이다. 이 천군이 무당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가지만 마을 사람 가운데서 뽑힌다는 것으로 보아 일반 사람이 명백하다. 그러나 아직 직업적인 무당이 등장하기 이전에 비직업적인 가정신앙으로서의 샤먼인지는 알 수 없고, 그 이상 추측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면 이러한 천군의 형태와 비슷한 것을 현존하는 민간신앙에서 찾아볼 때 천군에 가장 가까운 것은 부락제(동제)의 제관이다.

를 지내는 사람의 수에 상관하지 않고 부락제는 마을사람 전체적”인 것으로서,¹⁶⁾ 당주는 바로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을의 대표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과의 만남을 허락받았다는 의미와 같다. 즉 신의 거주장소인 당에서 신과 같이 지내고, 신과 교통할 수 있는 계기가 당주로 선출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기간의 신성함과 신비주의에 비해서 금기사항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특이함을 볼 수 있다. 제의기간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기간동안, 그리고 제물의 준비와 당에 대한 신성구역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이 점은 당제에 대한 의미의 약화로 평가된다. 즉 제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금기사항 보다는 제의의 신성함, 혹은 제의만은 꼭 지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기행위는 부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신을 맞기 위한 마음가짐의 준비이다. 이런 행위는 신과의 만남을 신성하다고 여기고, 또한 부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원을 해야만 소원성취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심리적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신진도리의 경우를 보면 당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부정을 씻어주는 목욕재계가 거의 없어진 상태이며, 또한 제물의 구입이나 제기의 사용에서도 신성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당주로 선출되는 것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고 제의에 참여했을 경우에 야기될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당주의 역할을 귀찮아 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에 대한 조정만(趙慶萬)의 글은 매우 적절하다.

민간신앙이 한 사회에서 약화된다는 것은 그와 문화와의 계기적 적절성(relevance)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뜻하며, 민간신앙이 문화의 표상적 기능을 잃어 가거나, 표상들이 성원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음을 뜻한다. 이러한 약화현상을 비롯한 제반 변화 역시 민간신앙과 비정합적(非整合的) 관계를 이루는 바로서의 현재 문화 전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¹⁷⁾

이러한 내용이 현재의 당제 현황을 전체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결국 당제의 내용적 변화, 즉 금기행위와 제의 절차에 대한 약화현상은 그 마을이 갖고 있는 환경적 경제적 정신적 기대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요인은 우리 민족의 기층요소로 전승되어 왔던 동제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민간신앙에도 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동제는 자연을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 고유의 집단 의례 행위로서 존속하여 왔다. 그러나 문화적 변동에 의한 한 마을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주민들의 이동현상의 극심화 등으로 인해서 자연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동제의 행위도 그것이 한 마을을 토대로 구축하고 있던 예전에 비해서 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동제의 목적변화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포구였던 용암리와 창리의 경우 선주들의 참여로 의지에서 무당을 초청하여 큰 굿까지도 벌였으나, 현재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마을사람 중심의 동제로 변모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¹⁸⁾ 이에 따라 풍어와 해상사고가 없기를 기원하던 제의 목적도 풍농이 강조되는 형태적 변질의 과정에 있다. 더불어 동제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되면서 다른 형태의 행사를 추구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많이 개최되는 향토

16) 崔吉城, 「한국민간신앙의연구」, p.171.

17) 趙慶萬, “「島嶼文化」民俗分野 研究의 反省”, 「島嶼文化」七輯, 木浦大學校 島嶼文化研究所, 1990, pp.267~268.

18) 이와 반대로 黃島의 大同祭는 참여권이 선주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河孝吉은 참여권의 목적 수행에 따른 변화로 지적하고 있다. (앞 글, p.585 참조할 것)

문화제가 그것이다.¹⁹⁾ 간월도리에서 굴부르기제가 부녀자 중심으로 전개되는 의례임에도 불구하고 당제보다 큰 행사로 개최되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이 행사의 제의 목적은 굴의 생산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제의의 비중으로 볼 때 당제가 중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마을의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굴부르기제가 유희성이 강하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의례의 변화는 크게 동제에 대한 인식변모와 마을이 지닌 생활구조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제는 한 마을의 생활영역과 마을사람들의 참여도, 현실적 필요성을 토대로 하고 있는 의도적 존재물로 평가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결어(結語)

이 글은 충청도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이 지역 내의 동제가 어떤 특징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지, 더불어 현재 거행되고 있는 동제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조사지역이 충청도 해안지방을 총괄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며, 또한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주로 해안지역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어떤 공통된 특징적인 면모를 밝혀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의도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조사된 지역의 동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농악과 무굿의 형태가 결합된 것이다. 그러나 무의 기능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마을사람들에 의해서 치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창리처럼 무당이 담당했던 굿놀이 대신에 소리패를 불러서 그 기능을 대치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것은 그만큼 마을 내에서 동제가 갖고 있는 비중의 약화를 뜻한다. 웅암리의 경우는 창리보다 무의 역할이 우월하기는 하지만 뚜렷한 자기위치를 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무굿의 형태는 점차 사라질 전망이며, 만약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축원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둘째는 당주와 화주로 선출된 사람에 의해서만 당제가 진행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신진도리와 간월도리의 경우가 그러한데, 묘하게도 두 지역이 모두 섬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듯하다. 제의기간 동안 마을은 정숙을 유지하며, 당에는 당주와 화주 만이 올라와서 제의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은 수호신에 대한 제의 뿐만 아니라 개인소지까지도 당주에게 일임한다는 점에서 마을 전체의 제의로 볼 수 있다. 동제의 행위는 신비주의적 면모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무속의 존재나 유교의식이 유입되기 이전의 순수한 동제로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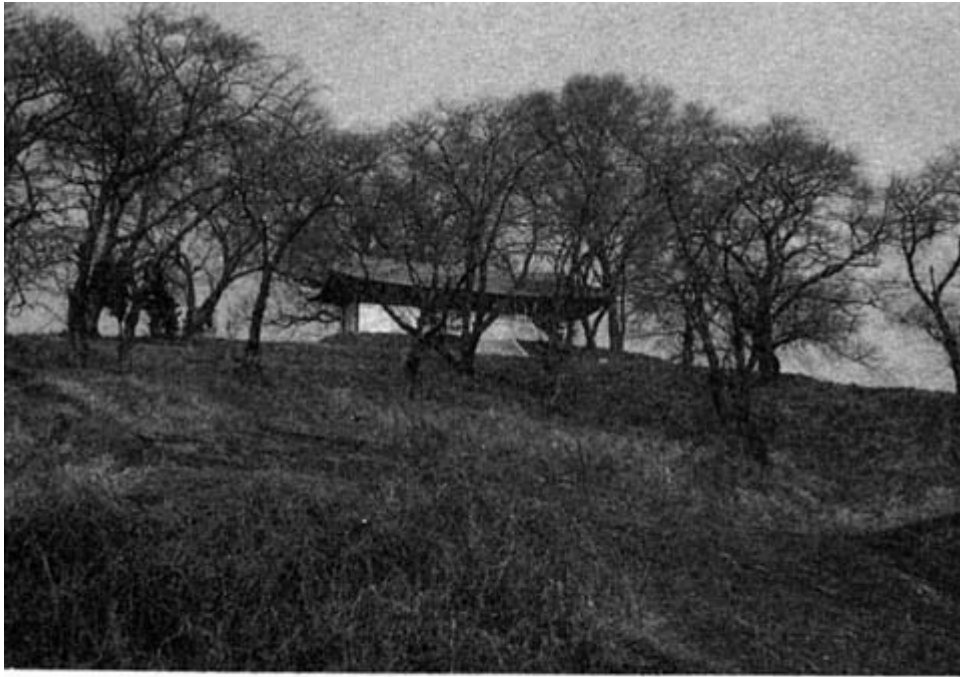
현재 거행되고 있는 동제는 극심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 이것은 마을이 갖는 지리적 환경적 생활적 요인과 동제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인식태도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웅암리나 창리의 경우 예전에는 포구로서 주생업인 어업과 관련한 내용을 제의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포구의 폐쇄와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장의 상실 때문에 주생업이 전환되어 농업 중심의 제의 목적을 갖게 되었다. 제의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제기간 동안의 금기행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또한 신을 직접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당주의 선출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과거에 맡았던 사람이 몇 년째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 금기행위의 철저한 준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당에 대한 신성함은 존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점차 상실될 위험이 높다. 동제과정의 축소화도 그러한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19) 崔吉城, 「한국민간신앙의 연구」, p.200.

이 글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개괄적인 자료의 제시에 불과하다. 하지만 동제의 변화형태와 동제 유형의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의 전개에 있어서 불충분한 면과 논리의 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실들은 앞으로 자기과제로 삼고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1. 金仁會, 「韓國巫俗思想研究」, 集文堂, 1987.
2. 金泰坤,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1983.
3. 金宅圭, 成炳禧 編, 「韓國民俗研究論文選. I」, 一潮閣, 1982.
4. 朴春錫, 「서산의 민속」, 智慧出版社, 1987.
5. 柳東植, 「韓國巫俗의 歷史와 構造」,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5.
6. 李杜鉉, 「韓國民俗學論考」, 學研社, 1984.
7. 李杜鉉外 3人, 「部落祭堂」, 文化財管理局, 1969.
8. 최길성, 「한국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9.
9. 「한국의 축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10. 村山智順, 「部落祭」, 朝鮮總督府, 1937.
11. 宮田 登, 「民俗宗教論の 課題」, 未來社, 1977.
12. Uno Harva, 「シ ??? ズ ? ア ?? イ 系諸民族 の 世界像」(田中克彦譯), 三省堂, 1971.
13. 李鐘哲, “民俗資料”, 「海南郡의 文化遺蹟」, 국립목포대학박물관, 1986. pp.345~410.
14. 趙慶萬, “黑山사람들의 삶과 民間信仰”, 「島嶼文化」6집, 목포대학 도서문화연구소, 1988, pp.133~181
15. 趙慶萬, “「島嶼文化」民俗分野 研究의 反省”, 「島嶼文化」7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0, pp.259~279.
16. 주장현, “서해안 대동굿誌”, 「민족과 굿」, 학민사, 1987, pp.221~269.
17. 河孝吉, “黃島大同祭의 形態와 그 變化樣相”, 「月山任東權博士公壽紀念論文集」, 1986, pp.573~585.



<甕岩里의 堂>

<웅암리(甕岩里)의 당(堂)>



<甕岩里 本堂祖父母神位>

<웅암리(甕岩里) 본당조부모신위(本堂祖父母神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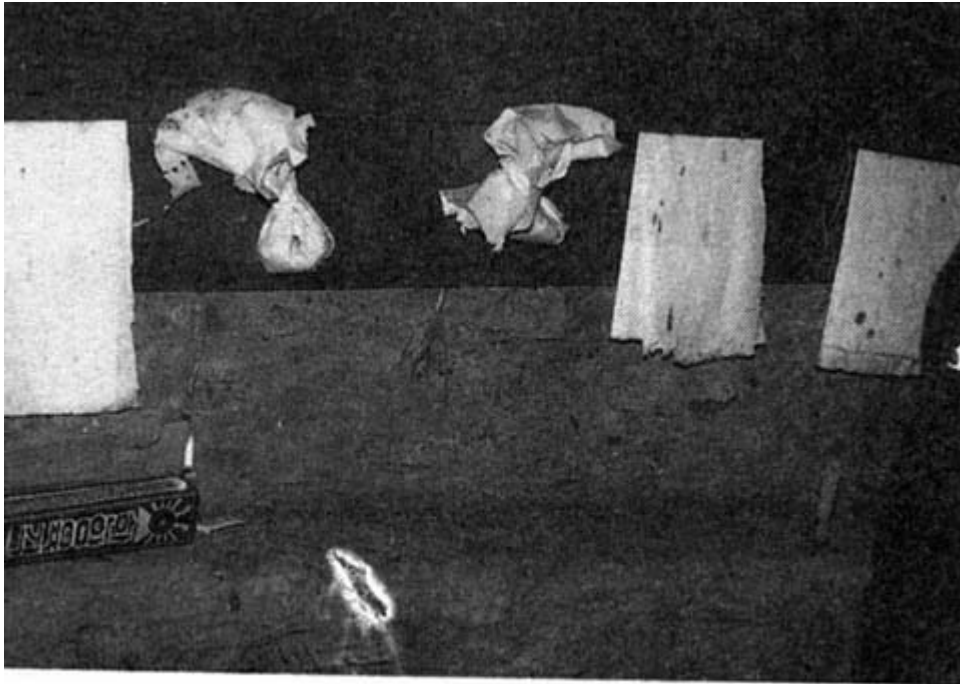
<新津島里 마을모습>

<신진도리(新津島里) 마을모습>



<新津島里 堂 모습>

<신진도리(新津島里) 당(堂) 모습>



<堂 内部의 한지와 上米>

<당(堂) 내부(内部)의 한지와 상미(上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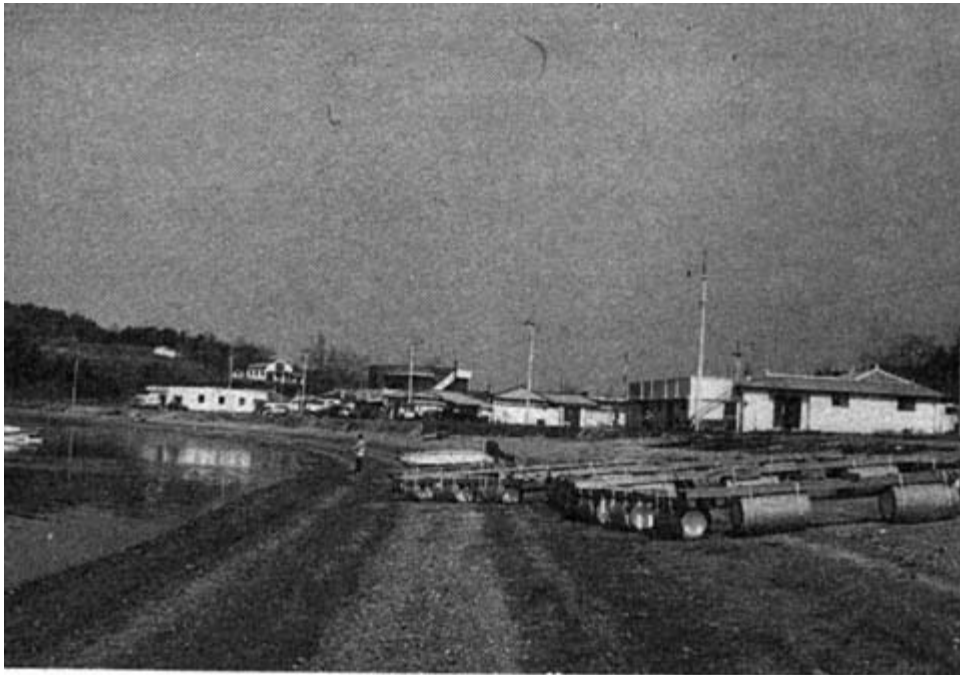
<倉里 靈神堂 神圖와 祭物차림>

<창리(倉里) 영신당(靈神堂) 신도(神圖)와 제물(祭物)차림>



<선주들이 자기의 뱃기를 들고
배앞에 서 있는 장면>

<선주들이 자기의 뱃기를 들고 배앞에 서 있는 장면>



<看月島里 마을 및 堂山>

<간월도리(看月島里) 마을 및 당산(堂山)>



<看月島里 굴부르기祭 췌상차림>

<간월도리(看月島里) 굴부르기제(祭) 췌상차림>



<굴부르기祭中 굴따는 모습>

<굴부르기제중(祭中) 굴따는 모습>